

장애인의 날(4.20) 특집 - 바리스타 취업에 성공한 청년장애인 홍진석씨 이야기

“아메리카노와 하트모양 라떼를 잘 만들어요”

제주사회복지신문은 오는 4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첫 취업에 성공한 홍진석(22, 지적장애 2급)씨를 인터뷰했다. 그는 지난달 8일 제주도청 삼다정 건물에 개소된 중증장애인일자리사업장 카페 'I got everything'에서 막내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 <편집자 주>



▲ 지난달 22일, 홍진석(22)씨가 '연결고리' 랩을 부르고 있다.

- 어떻게 바리스타가 되게 되었는지.

2년 전 일배움터 원예훈련원으로 있을 때 바리스타 과정을 배우는 선배 훈련원들을 보게 됐다. 앞치마를 두른 바리스타 복장과 함께 에스프레소 머신을 통해 커피를 내리는 모습이 너무 멋있어 보였다. 지난해 일배움터 바리스타 교육생 모집 소식을 듣고 바로 지원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득했다. 여러 선생님의 도움으로 카페 'I got everything'에 채용돼 일하게 됐다.

- 카페에서 어떤 일을 하나.

서비스파트에서 설거지와 정리정돈이 내 주 업무이다. 매니저님 지도하에 음료를 내리기도 한다. 가장 자신 있는 음료는 아메리카노와 하트를 얹은 라떼이다.

- '첫 직장'이라고 들었다. 취업 후 달라진 점들이 있다면.

집중해서 열심히 해야 할 일이 생겼다. 그 자체가 내겐 큰 기쁨이다.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면서 표정이 밝아졌다는 소리를 많이 듣는다. 부모님도 좋아하신다. 아직 취업을 하지

못한 예전 동료 훈련원들도 날 부러워한다. 훈련원 때는 통근버스를 이용했지만 지금은 시내버스를 타며 출퇴근한다.

- 일하면서 즐거운 때와 힘들었던 때는.

항상 즐겁다. 가끔 다 마신 컵을 돌려주며 "맛있게 먹었어요"라고 인사를 건네는 분들이 있다. 그때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

힘든 건 없다. 굳이 말한다면 일을 할 때 내 생각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 내게 실망하게 되

고 힘들다고 느낀다.

- 첫 월급을 받으면 무엇을 할 계획인가.

우선 부모님께 맛있는 음식과 선물을 사 드릴거다. 취업이 되면 일배움터 훈련원들에게 아이스크림을 사겠다고 한 약속도 지켜야 한다. 나머지 금액은 미래를 위해 저축하겠다. - 여가시간에는 무엇을 하는지.

랩 하는걸 좋아해 랩음악을 즐겨 듣는다.

"랩을 조금 들려줄 수 있나"라는 부탁에 휴대폰으로 바비의 '연결고리' 음악을 틀어 거침없는 랩 솜씨를 들려줬다. 빠른 랩을 해내는 홍진석씨의 모습처럼 대한민국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도 거침없이 나아가길 바란다.

사랑나눔푸드마켓 '우수 사업장' 선정

복지부 3년 단위 평가 2회 연속 '우수' 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사랑나눔푸드마켓이 '기부식품제공사업장 평가'에 2회 연속 '우수' 사

업장으로 선정됐다(관련내용 8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기부식품제공사업장 평가는 지난 2012년부터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내실화를 위해 3년 단위로 진행된다.

이번 평가는 2015년 기준으로 신고된 전국의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총 435개소(광역 17개소, 기초푸드뱅크 291개소, 기초푸드마켓 127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랑나눔푸드마켓은 전국 기초푸드마켓 127개소 중 상위 평가를 받아 우수

사업장에게 부여되는 인센티브를 받는다.

푸드마켓 관계자는 "지난 8년간 많은 후원자 분들께서 사랑과 관심을 보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도내 저소득층에 좋은 물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다"고 말했다.

지면소개

종합	3면
도, 33개 복지사업에 545억 투입 예정	
사회복지소식	4면
장애인 가정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오피니언	6면
시론·칼럼·기고	
기획	7면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9)	

장년나침반

생애설계프로그램



중장년층에 진입한 근로자의 미래경력 준비를 위해 경력전성기 확장, 아울러 경력을 유지·개발하기 위한 일중심의 생애경력 설계 교육 프로그램



■ 교육내용 : 1일(6시간)~2일(12시간)과정

1일차 • 동 : 나의 생애 조망하기
• 서 : 직업역량 도출하기

2일차 • 남 : 경력대안 개발하기
• 북 :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동(3h)	서(3h)	남(3h)	북(3h)
나의 생애 조망하기	직업역량 도출하기	경력대안 개발하기	평생경력계획 수립하기
• 중장년의 특성 이해하기 • 내 삶의 가치 탐색하기	• 직업세계 변화 따라잡기 • 직업역량검사 및 해석 • 감정역량 공유 및 약점역량 보완하기	• 경력설계의 4가지 방법 • 대안개발 사례연구 • 경력설계를 위한 네트워크	• 경력계획 사례연구 • 나의 경력 찾기 • 경력계획 수립

■ 대상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만40세 이상 근로자(1976.12.31.이전 출생)

■ 비용 : 무료 ■ 운영기관 : 노사발전재단 제주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 문의

- 연락처 : 064)710-4502 (최진숙 책임컨설턴트) - 홈페이지 : www.lifeplan.or.kr

- 주소 : (제주센터) 제주시 중앙로 165, 3층

제주도의회 의정소식



제주여성 '재생산 건강지표' 최하위 수준

'여성의 건강권 확보' 를 위한 정책토론회

보건복지안전위 주최

도의회 강익자 의원(더불어민주당)실이 주관한 세계 여성의 날(3.8) 기념 '여성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9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사진).

여성단체 회원, 보건관련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토론회는 김동식 한국여성정책연구위원의 '여성의 재생산건강권, 이대로 괜찮은가?' 발제로 시작됐다.

김 연구위원은 '재생산 건강 주요지표' 통계 자료를 제시하며, "제주는 생식 질환 중 '무월경, 소량 및 희발 월경' 환자수 전국 1위, '여성 생식건강 및 월경주기'와 관련된 통증' 환자수

전국 5위, 임균감염 환자수 전국 3위, 클라미디아 림프육아종 환자수 전국 1위, 피임관리 환자수 전국 1위 등 제주여성의 재생산 건강지표가 대체로 나쁘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주제발표자로 나선 고명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생리대 정책에 대한 제주 여성 283명의 욕구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복지 아닌 인권 차원으로 접근해야" 주장

설문조사 주요결과를 보면, 학교·직장 등에서 생리대를 제공받은 경험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16.2%인 46명이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생리대 미준비로 인해 곤란함을 경험한 적에 대해서는 78.4%인 222명이 '그렇다'고 답했다.

'공중화장실 생리대 자판기 설치'와 관련해서는 91.5%인 259명이 필요하다고 답해 비상시 생리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대안에 대해 대부분의 여성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부 토론에서는, 고지영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이 "재생산 건강권과 관련한 정책이 여성 이슈에서도 보건 이슈에서도 소외되어 왔다"며 "본격적으로 재생산 건강과 관련한 조사와 연구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경미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장은 장애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정책의 부재를 지적하며 "여성장애인도 여성의 정체성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보편적 여성 건강권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차연 제주 법률사무소 진솔 대표는 "여성의 건강권은 헌법상 기본권이며, 건강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것은 위법이 아닌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강 의원은 "토론자들의 일관된 주장은 여성의 건강권은 복지 차원이 아닌 '권리·인권'의 차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오늘 제안된 내용들이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열심히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취업 희망 여성 교육훈련 과정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경력단절 등 취업희망 여성들의 일자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내 여성 취·창업 지원기관인 여성새로일하기센터(3개소)를 통해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맞춤형 여성일자리 직업교육훈련 15개 과정을 개설 운영한다.

지난해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가 전국에서 여성 고용률은 가장 높은 지역임에도, 경력단절 여성수는 '15년 1만5천명 대비 1,000명이 늘어난 1만6천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6.6%)을 보였다.

이는 도외 지역에서 직장을 그만 두고 제주로 이주해 오는 경력단절 여성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도는 도내 3개 여성 일자리 지원기관을 통해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와 도내 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여성 일자리 사전 수요 맞춤형 직업교육훈련을 지난해 11개 과정에서 15개 과정(교육인원 328명)으로 확대·운영키로 했다.

2017년도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여성가족부의 '직업

교육훈련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으며, 국비 2억 8천만원을 지원받아 운영된다.

교육생 선발은 도내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교육과정별로 훈련생을 모집하고 취업의지 등 심층상담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 운영하며 취업률 70%(229명)를 목표로 교육훈련 및 취업 면접 컨설팅 등과 병행하여 진행하게 된다.

구인·구직 및 직업교육훈련과정 참여 희망자는 제주·서귀포·한라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제주도, 장애물 없는 공공시설물 확대

마을경로당·복지회관·관광시설에도 'BF 인증제' 적용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관광객이 공공시설 이용과 접근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올해부터 마을경로당, 복지회관, 관광숙박시설 등으로 'BF(Barrier Free) 인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지난달 16일 밝혔다.

BF 인증제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모든 국민이 일상생활과 공공시설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으로 추진한다.

인증은 건축물 착공 이전 설계도면을 전문 인증기관에서 검증하도록 해 장애물과 이동불편 사항을 미리 제거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도는 지금까지 공공청사와 공공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만 BF 인증을 받도록 했으나, 올해부터는 재건축하거나 증축하는 공공건물은 물론 보조금 지원사업에 의해 건축하는 마을경로당(노인회관), 복지회관 및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하는 관광숙박시설 등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푸드마켓 FOOD MARKET "세상에 하나도 가장 맛있는 나눔" 3월기탁 현황

- ▲금강수산유통=수산물120kg ▲금강축산유통=축산물185kg ▲김치원=김치60kg ▲꽃비나리는뜨락=떡306개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두부212모 ▲대한천리교 대선교회=쌀300kg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도너츠140개 ▲동원F&B제주지점=동원식품1,719개 ▲빠라빠빵=식빵32봉 ▲신화유통주식회사=고추장등345개 ▲암암영농조합법인=빵61봉 ▲에스에이치유통=달걀소스780개 ▲유진상사=오투기식품3,418개 ▲자연드림 이도점=빵131봉 ▲장혜경=식품33개 ▲제주보리촌=보리빵870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감귤음료200병 ▲갯어클락=식빵26봉 ▲파리바게트 동광초점=식빵76봉 ▲행복나눔마트 오라점=빵321봉

•기탁문의 : 사랑나눔푸드마켓 •문의전화 : 064-758-1377

사회복지협의회 2017년 2월 후원금 현황 (단위: 원)

구분	후원금수입	후원금 사용액
재가결연후원	540,000	0
난치병환아후원	55,000	0
자원봉사후원	370,000	370,000
복지사업후원	940,000	521,108
푸드마켓후원	3,285,000	107,010

* 후원자님들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제주사회복지신문 발행안내 www.jejubokji.net

우) 63300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청풍남 8길 12-1 (예전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 1동 1112-1)

발행인: 고치환 편집인: 고경운 편집자문: 김길용·김범훈·한영조

- 창간일: 2007년 9월 1일
- 등록번호: 제주라 01010
- 편집위원실: 070)4726-8826
- 편집디자인: 디자인리더제주

도, 33개 복지사업에 545억 투입 예정

내년 사회복지예산 20%대로... 복지시설 운영 개선에 역점

제주도는 지난달 16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는 내용의 '제주형 도민복지 향상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복지편의시설 확충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 역점을 두고, 총 33개 사업에 545억원의 재원을 추가해 올해 19.1%의 사회복지예산을 내년 20%대로 끌어 올린다는 계획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어르신, 장애인, 입소아동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정도모를 위해 8개 사업에 96억원을 지원한다.

실제 생활이 빈곤함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 저소득 약 277가구에 대해 특별생계비를 지원하고, 무주

택독거노인 임대료 부담 해소를 위해 지원 기준(임대료 3백만원 이상 신설)을 확대한다.

전국 최초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을 현재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 시행하며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활동지원 시간도 대폭 늘린다.

도민들이 이용하는 복지편의시설 개선·확충을 위해서는 7개 사업에 396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발달장애인 평생종합지원센터를 건립·운영하고 장애인 다목적회관을 건립해 장애인 재활과 복지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치료·재

활·교육 등을 수행할 청소년 종합치유센터를 건립하고, 증가하는 치매노인 돌봄 강화를 위해 도립노인요양원 시설을 증축할 방침이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종사자 처우 개선에는 18개 사업, 53억원을 지원한다.

청소년 쉼터, 여성복지시설 등 재정이 열악한 복지시설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사무실 임차비용을 지원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사무장 활동비를 월 10만원으로 상향한다.

지역 간 복지수요를 감안해 인력이 부족한 복지관(9개소)을 보강하며 노인일자리사업 전담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광역푸드뱅크 보관시설 및 인력 등도 확충할 계획이다.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사업 확대

지원절차·규정 개선... 올해 1억1천만원 기부

카카오(대표 임지훈)가 제주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인터넷하는 돌하르방' 사업을 위해 올해 1억1천만원을 기부한다고 지난달 14일 밝혔다.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은 제주를 대표하는 IT기업 카카오가 제주지역사회 발전과 긍정적인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는 공익사업으로 지난 2008년 첫 후원을 진행한 이후 지금까지 총 420건(개인 328건, 단체 92건)의 후원활동과 누적 기부금 4억4천여만원을 지원했다.

'인터넷하는 돌하르방'의 지원 절차와 규정도 개선됐다. 지난해 분기별 1회 진행되던 사연신청과 후원을 격월 1회로 확대해 즉각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개편했다. 사업이 선정되

면 1년간 지원할 수 없도록 한 단체 지원 규정도 올해부터는 완화된다.

지원 대상은 제주도에 주소지를 둔 중위 소득 80%이내에 해당되는 개인 또는 가족, 제주도에 소재지를 둔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 기관이다.

개인의 경우 꿈과 진로를 위해 필요한 물품 또는 교육기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단체는 지역사회 및 수혜자의 긍정적 변화가 기대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후원 신청이 가능하다.

후원이 필요한 제주 지역내 개인 및 단체는 인터넷하는 돌하르방(<https://together.kakao.com/promotions/67>)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사연을 작성 후 이메일(kakaoharbang@daum.net)로 접수할 수 있다.

ssn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소식

사회복지시설 우수근무자 등 24명 해외연수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 고치환)는 지난달 1일부터 4일까지, 3박4일 일정의 '2017 사회복지시설 우수근무자 해외연수'를 진행했다(사진).

사회복지직능별 단체에서 추천된 우수근무자 등 총 24명이 참가한 이번 해외연수는 중국의 상해·오진·무석 지역의 문화를 탐방하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사회복지시설 우수근무자 해외연수'는 제주사회



복지협의회 회원시설 지원 사업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번 연수에는 조리사, 간호사, 차량기사 등 사회복지시설

재직기간 10년이 넘었으나 그동안 연수기회를 갖지 못했던 근무자들로 선정돼 해외문화를 배우고 오는 기회를 가졌다.

'2017년도 임시 이사회' 개최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달 30일 협의회 2층 삼다수홀에서 '2017년도 제1차 임시 이사회'를 개최했다. 제7대 임원 구성 후 처음 개최된 이번 이사회에서는 아라어린이집 감사보고가 진행됐다.

또한 '아라어린이집 2016년도 사업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아라종합사회복지관 2016년도 아라주는 아라마을 만들기 특별회계 사업추진실적 및 세입·세출 결산안' 등 총 7개 안건이 부의돼 심의·가결됐다.

(주)위드오, 더치커피 음료 후원

제주사회적기업 (주)위드오(대표 홍근화)는 지난 14일 제주광역푸드뱅크로 '유기농 제주 더치다방' 커피 5박스(100개)를 후원했다.

(주)위드오는 풀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자연이 주

는 건강한 소리를 들려주고자 건강한 먹거리를 실천하는 기업으로 도내 사회복지시설에도 기부를 아끼지 않고 있다. 기부한 커피는 기초푸드뱅크를 통해 도내 어려운 이웃 50여명에게 제공됐다.



KISJ COMMUNITY 지역사회봉사단 위촉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는 지난달 10일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커뮤니티(KISJ COMMUNITY, 단장 박창현)를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했다(사진).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KISJ COMMUNITY 봉사단은 월 1회 새터민가정,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

층 아동을 대상으로 인권·외국어 교육과 재능기부(미술·음악)등의 봉사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창현 단장은 "제주 지역을 더 아름답게 만들어보자는 꿈과 희망으로 시작한 동아리가 지역사회봉사단으로 위촉돼 영광"이라며 "재능을 활용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제주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가정 의료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귀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임태봉)은 지난달 7일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의료원(원장 성대림)과 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협약은 장애인 가정의 질병예방, 영양개선,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공공의료와 복지가 결합된 장애인 가정의 건강증진 의료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뤄졌다.

부모가 정신적 장애를 갖고 있는 자녀의 경우 가정 내 취약한 양육환경으로 인해 가장 기본적인 예방접종에서부터 성장발달 과정에 맞는 영양지원 등 건강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일반아동들에 비해 연령에 맞는 인지발달과 성장발육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더욱이 응급상황에 병원을 찾았을 때도 부모의 장애 특성으로, 자녀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아동의 건강상태에 맞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운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서귀포지역 장애 가정의 중학교 3학년 미만 장애·비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서귀포의료원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와 연계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대상자의 개별적인 건강상태에 맞는 건강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더불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장애인 가

정의 발달장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서귀포의료원 공공의료팀과 연계해 복지관을 통해 의뢰되는 서귀포시 관내 17개 읍면동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1차 무료검진을 실시하고 개인별 건강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복지관은 이를 바탕으로 대상자별 영양증진, 위생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재가장애인의 건강증진 도모를 추진한다.



제주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발대식' 개최

제주시니어클럽(관장 황영애)은 지난달 7일 제주학생문화원에서 '2017년도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및 노인일자리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발대식은 원희룡 제주시도지사, 신관홍 제주도의회의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 노인 등 8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전체 사업 안 내 및 직무·안전교육 등이 진행됐다.

올해 도 노인일자리사업은 노노케어, 공공시설 봉사 등 49개 사업단에 6900여명이 참여하며 총 150억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시니어인턴십 등 민간일자리사업 추진을 포함하게 되면 총 8천여명의 노인일자리가 창출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성장 전환을 위해 보건 복지부 공모사업 '노인취업교육센터'를 유치하고, 고령자친화기업 시범운영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 지사는 격려사를 통해 "최고의 노인복지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에 따라 어르신 각자의 노후가 제주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지원을 통해 모범적인 노인복지 도시, 장수의 섬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은성복지관,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진행

은성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봉환)은 법무부가 주관하는 이민자 조기적응 지원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 이민자가 한국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한국어 및 한국사회 이해)을 이수한 이민자에게 국적취득과 체류허가 등에서 이민정책 방향에 맞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다.

은성종합사회복지관은 2012년부터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며 다문화가정의



▲ 지난달 14일, 은성종합복지관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모습.

당사자를 도내 최초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채용하며 다양한 이민자(다문화가족) 특화사업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은성종합사회복지관 관계자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

는 북한이탈주민(새터민)과 이민자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적 프로그램 및 교육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참가문의=은성종합사회복지관(064-726-8388).

농아복지관, 인권상담 서비스체계 구축

제주도농아복지관(관장 문성은)은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홈페이지를 통해 인권상담 서비스체계를 구축해 인권의 사각지대 해소, 장애당사자의 역량강화, 자립적 권리향상 등의 장애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법률적 지지체계를 마련했다.

이를 위해 법률회계사무소 조은(변호사 부성혁)을

통해 자문변호사를 위촉받아 보다 체계적인 법률적 자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성혁 변호사는 제주도 지방노동위원회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제주동부경찰서 수사민원 상담센터 상담변호사, 제주 소기업·소상공인 경영지원단 자문위원장의 다양한 지역사회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한 장의 사진으로 사랑을 전해요"



지원센터 홈페이지(www.jeju-foster.or.kr) 및 이메일(jeju-foster@gmail.com) 등을 통해 접수받으며 심사를 통해 대상 1명, 은상 2명, 동상 3명, 입선 10명을 선정한다. 시상식은 가정의 달을 맞아 5월 13일(토)에 열 예정이다.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관장 강철남)는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한 달간 '따뜻한 사랑이 담긴 사진'을 주제로 한 '제11회 사랑(애) 사진 공모전'을 진행한다.

사진응모는 제주가정위탁

한 장의 사진으로 가족·친구·동료 등과 사랑을 표현하는 이 공모전은 올해 제11회를 맞이하는 도내 대표적인 사진 공모전으로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장애가정청소년 대상 '성장 멘토링' 발대식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관장 윤보철)은 지난달 25일 복지관 강당에서 '2017 장애가정청소년 성장 멘토링' 발대식을 개최했다.

멘티·멘토 각 14명과 멘티 가족 등 총 50여명이 참석

한 이번 발대식은 성장 멘토링 사업설명, 멘티-멘토 서약, 식사 및 교류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우정사업본부가 후원하는 '성장 멘토링 사업'은 장애 가정 초등학생 멘티와 대학

생 자원봉사자 멘토가 1:1로 짝을 이루고 멘티의 건강관리, 학습지원, 문화체험, 여름캠프, 부모 및 멘토간담회 등을 지원해 참가자들이 건강하고 당당한 청소년으로 성장하는데 목적을 둔다.

소/식/마/당

사랑의 손길 전달



우리은행 서귀포지점(지점장 김영주)은 지난달 15일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정혜재활원(원장 이홍기)을 방문해 30만원 상당의 후원물품(쌀)을 전달했다.

지난 2007년부터 정혜재활원에 정기·비정기적 물품을 후원하고 있는 김 지점장은 “앞으로도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혜정원에 디지털 라벨기 설치



혜정원장애인직업재활시설(원장 이민숙)은 지난 달 22일 판촉물 생산장비인 ‘디지털 라벨기’를 설치했다.

다양한 제품의 판촉물 생산이 가능해진 혜정원직업재활시설에서는 물티슈와 칫솔치약세트 등을 우선 생산·판매할 계획이다. 이민숙 원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장애인의 직업 제공과 임금 향상에 도움을 주는 가장 쉬운 지역사회복지 실천 방법”이라고 전했다.

아동건강을 위한 업무협약



참좋은지역아동센터(센터장 황의식)는 지난 달 17일 합기도태무관(관장 허석운)과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사회 복지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협약식’을 체결했다.

합기도태무관은 특공무술·경호무술·마살아츠를 전문으로 지도하는 체육관으로 이번 협약에서 참좋은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심신 단련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강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증진 업무협약 체결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이사장 김호철)는 지난달 20일 제주마미(대표 한선화)와 ‘저소득층 복지증진 및 공정여행 발전’에 관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제주마미는 요리를 주제로 한 체험강의 및 관광콘텐츠 개발회사로 이번 협약을 통해 저소득층 복지증진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관광문화체험 전문인재 육성, 공정여행 발전에 서로 힘을 모은다.

2017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



서귀포시노인복지관(관장 김재경)은 지난달 10일 서귀포김정문화회관에서 ‘2017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을 개최했다.

경로당 안전관리 사업 참여자 등 180여명이 참석한 이날 발대식은 대표선서를 시작으로 안전교육과 활동교육을 실시했다. 김재경 관장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 노년층의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피자만들기 체험 행사



제주애덕의집(원장 현성훈)은 지난 달 22일 MPK그룹 미스터피자와 함께하는 ‘ 피자만들기 체험’ 행사를 실시했다.

MPK그룹 사회공헌활동으로 이뤄진 이번 행사에서는 제주애덕의집 이용자·종사자 80여 명이 참여해 피자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또한 세계 피자대회에서 3년 연속 우승한 도우쇼 챔피언의 화려한 묘기 공연도 펼쳐져 참석자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느영나영 하모니데이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센터장 임운정)는 지난 2월24일 ‘2017 느영나영 하모니데이’ 사업 프로그램으로 제1회기 미나사탕부케 만들기 체험을 진행했다.

지역사회네트워크 연계사업인 이번 행사는 이윤경 강사의 재능기부로 복지관 이용인 30여 명이 참가해 리본, 비누꽃, 사랑을 활용하여 자신만의 특색있는 사탕부케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다.

나눔을 통한 즐거운 추억



혜정원 아가의집(원장 박두현)은 지난달 4일 국제라이온스협회 354-G(제주)지구 제5지역과 일일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혜정원 아가의집 이용자·종사자·라이온스 회원 등 80여 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중문에 위치한 플레이케이팝 박물관을 다녀왔다. 제5지역 부총재인 신진호L은 “나눔을 통해 즐거운 추억을 얻게 되어 기쁘다”며 소감을 전했다.

개원 16주년 기념행사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송죽원(원장 김금자)은 지난달 24일 ‘개원 16주년’ 기념행사를 실시했다.

거주장애인 보호자, 후원자, 종사자 등 70여명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개원 16주년 축하 다과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금자 원장은 “보호자·후원자님이 많은 격려와 관심, 사랑으로 기쁜 날을 맞이할 수 있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다.

아라하모니합창단 축하공연



아라종합사회복지관(관장 조성태) 아라하모니합창단은 지난달 9일 서귀포 컨벤션리조트에서 열린 ‘제5회 좋은이웃들 전국대회’에 참석해 축하공연을 실시했다.

이번 축하공연에서 ‘제비’와 ‘사랑님’을 열창한 아라하모니합창단은 아라동 지역내 55세 이상 어르신으로 구성되어 제주도립합창단 문순배 지휘자의 지도아래 4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합창단이다.

중증뇌병변장애인 대상 평생강좌



제주장애인요양원(원장 정석왕) 부속 제주장애인평생교육센터는 지난 달 6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중증뇌병변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강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증뇌병변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향유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을 둔 이번 평생교육 강좌는 ‘원예·요리·미술·난타·음악놀이 교실과 동화구연’ 총 6개 분야로 이뤄져 성인반과 청소년반으로 구분·운영된다.

발달장애인 자립캠프



성인발달장애인 주간보호시설 희망나래활동센터(원장 박인향)는 발달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내-일을 잡아라’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16~17일, 1박2일간 자립캠프를 실시했다.

이용장애인들의 사회성·대인관계 능력 향상, 협동심과 자립심을 기르기 위한 이번 자립캠프는 데파파크공연 관람, 올레길 걷기, 부모님께 감사 편지 쓰기 등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시론

바우처제도와 복지서비스의 변화

최근 바우처 복지서비스제도가 확대되고 있다. 바우처제도는 수요자(수혜자) 선택권에 초점을 맞춘 제도이다. 복지시설인 공급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맞춰 수요자가 일방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아니다. 수요자가 자신에게 맞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해 복지시설을 선택하는 것이다.

이는 그동안 공급자인 복지시설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점차 수요자 중심의 복지서비스 선택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선택 되는 복지서비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는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카드, 즉 바우처제도를 다양한 분야로 넓혀 가고 있다. 주택 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 문화·교육·육아돌봄 바우처 등 다양하다. 심지어 산림복지에까지 바우처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실제 2016년부터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산림복지 바우처제도는 전적으로 수혜자에게 시설이

용 프로그램 선택권이 부여되고 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17년 바우처제도 운영계획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수급자, 장애아동수당수급자에 한해 연간 1인당 1매 10만원의 바우처카드를 제공하고 있다. 바우처카드를 받은 수혜자는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 해당 시설에 있는 숙박비나 식비, 각종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지출할 수 있으며 만약 10만원이 넘을 경우에는 개인부담이 된다.

또한 등록된 시설은 2016년 12월 현재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등 전국 31곳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제주에는 등록된 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아쉬움을 주고 있다.

질로 평가받는 시대

이처럼 바우처제도의 확대는 공적영역으로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설에도 사적영역인 경영시스템이 불가피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복지시설 허가는 쉽게 허

용하는 대신 시설운영은 시장 경쟁으로 유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바우처제도는 수요자가 복지시설 운영 프로그램을 조목조목 따져보고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 자체로도 복지시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질 여부가 드러나게 된다. 그리고 예산을 보조하는 정부는 이용자 통계자료 하나만으로도 경영실적을 간편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때 바우처제도는 피할 수 없는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 이에 복지시설들은 살아남기 위해 이용자에게 맞는 질 높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않을 수 없다. 수요자 권리가 높아지는 시대, 프로그램의 질로 평가받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다.



한 영조
산림치유지도사

기고

사회복지관 이용이 주거생활 만족 높여



조 성 태
아라종합사회복지관장

아라종합사회복지관은 3년마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 및복지욕구를 파악해 주민복지향상을 이루고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

2016년도에 실시한 주민욕구조사는 아라LH아파트 주민을 대상으로 했고, 응답자의 연령으로는 70대 이상이 132명(57.4%), 60대가 47명(20.4%), 50대가 28명(12.2%), 50대 미만인 23명(10%)으로 합계 230명이다.

조사 내용 중 '복지관 서비

스 이용 현황에 따른 현 거주지 만족도' 분석결과, '복지관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민의 현 거주지 만족도'가 6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거에 이용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이용하지 않는 주민의 만족도'가 48.5%이며,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은 주민의 만족도'가 48.1%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관 서비스를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민의 현 거주지 만족도'가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주민의 만족도' 보다 16%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복지서비스가 주민의 주거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복지관은 2016년도에 사례관리기능, 서비스제공기능, 지역조직화 기능에 포함되

는 10개 사업 25개 복지서비스를 실시했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실인원이 1,060명, 연간 13만5천명이 이용을 했다.

독거세대 증가 및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 복지수요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다양화가 진행되고 있고 이에 부응하기 위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관들간의 협력과, 행정과의 협력적 업무 수행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주민들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사례관리실천은 민간기관과 행정기관과의 상호 협력관계를 갖도록 하는 제도적 규칙도 요구된다.

사회복지기관들의 복지서비스와 더불어 지역주민들이 '이웃을 서로 돌아보고 상부상조하는 수놓음 전통'을 강화시켜가는 것 또한 병행하는 것이 절실하다.

칼럼

차가운 봄

설한의 끝자락에서 남녘의 화신에 맘 설레던 때가 언제였던가. 완연한 봄기운에 만개한 복숭아꽃이 화사하다.

하지만 꽃이 아름다운들 화무십일홍이라. 꽃가지에 그윽한 화피의 숨결도, 방향도 시나브로 연둣빛 신록을 향하겠지. 봄은 무르익지만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정농단사건으로 시국이 어수선하고 혼잡스럽다. 이 봄이 차갑게만 느껴지는 춘래불사춘의 심경이다.

오늘도 여느 때처럼 운동장을 향해 여명의 새벽길을 나선다. 현관문 앞에는 지방일간지와 우유가 배달되어 있다. 큰 길 건너 시장 앞에는 일터로 가기 위해 모인 노동자들이 웅성거린다. 폐지수집 리어카를 힘겹게 끌고 가는 등이 구부정한 노인네가 애처로워 보인다.

하루가 고달프지만 여명의 새벽을 열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처절한 생존 몸부림은 눈보라 치는 겨울에도, 오늘에도 계속된다.

세상사의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며

온화한 봄은 왔지만, 하층계급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증진이나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소식은 접하기 어렵다. 마스크에는 온통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선거관련 정치뉴스가 주를 이루고 있다. 언제면 우리 사회가 안정을 되찾아 따뜻한 소식들이 전해질까.

사적 인연에 얽매어 공사를 구분치 못하고 권력을 남용한 최고 권력자. 이에 호가호위하며 국정을 농단한 그 아녀자와 무리들.

그 결과는 최고의 헌법기관에서 대통령이 파면당하여 피의자가 되는 초유의 사태로 귀결되었다. 이른 봄 고고한 자태를 뽐내다 낙화한 백목련의 추한 물골을 닮았다.

대통령이 공사를 구분하고 정도를 걸었으면, 비선실세란 자들이 본분을 지켰으면, 이런 혼란이 있었을까. 낙화한 꽃잎처럼 화려함은 가고 추한 모습만 남았다. 애증이 교차하며 너무도 안타깝고 진한 아쉬움만 남는다.

오랫동안 지속된 촛불과 태극기 물결은 주권재민의 헌법정신을 잘 표출했지만, 결과는 국민들이 찬반으로 나뉘어 분열과 반목의 제로섬게임이 되었다. 이 혼란은 오로지 법치국가의 법에 의한 지배에서만 치유될 수 있다.

이 봄이 가기 전 새 대통령이 선출된다. 하지만 지금같은 비극적인 일이 다시 일어날까 두렵다. 제왕적대통령제 폐해를 막을 제도개정 없는 장래에 이런 일들이 없다는 보장이 없다.

설렘과 아쉬움이 남는 온화한 봄날처럼, 행복한 세상사의 진정한 봄날이 내 마음속에 자리할 때는 언제일까.

그 춥던 지난겨울과 이 차가운 봄이 가면 따스한 봄날은 그래도 다시 오겠지.



문 익 순
(전)제주4·3사업소장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창립 30주년 기념

제주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9

남시영(59) 사회복지법인 '평화의마을' 대표이사

“장애인이 권리 있는 주체로
당당히 살아가는 환경을 그려요”

언제부터인가 이주인구가 급격히 늘어나 지난 해 말 제주인구는 66만 1천여 명에 이르고 있다. 제주가 누군가의 꿈을 이루고 미래를 펼칠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은 반가운 일이다. 제주로의 이주열풍이 일기 한참 전인 20여 년 전, 제주로 이주해 와 자신이 젊은 시절 꿈꿔 왔던 장애인복지의 큰 그림을 조심스럽게 그려가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 남시영 대표이사를 '제주 사회복지인을 조명하다' 아홉 번째 인물로 만나 보았다.

“그리고 보니 오늘이 제가 제주에 내려온 지 만 20년이 되는 날이네요” 공교롭게도 남 대표를 만난 지난 3월 31일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었다.

남 대표는 대학에 가서 신학공부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 했지만 목회 활동을 위해서는 인간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지인의 조언이 계기가 되어 대구대학교 사회사업학과를 선택하게 된다. 졸업을 앞두고 방문하게 된 '거제도 애광원'이라는 장애인생활시설은 1989년 1월부터 그가 사회사업을 실천하는 첫 현장이 된다. 이후 그는 1989년 학회행사로 일본을 방문해 장애인시설을 둘러보게 되는데 나카사키의 데테코이랜드는 남 대표의 평소 장애인복지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장애인 부모와 장애 당사자들이 함께 묶으며 각종 정보도 교류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시스템이었어요. 당시 우리 실정에서 데테코이랜드는 저에게 상당히 획기적으로 인식되었어요.”



▲ 1998년도 애광원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는 남시영 대표이사 모습.

그런 그가 제주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을까. “애광원으로 오는 상담전화 중에 제가 유일하게 제대로 된 답변을 못해드린 분이 제주에서 전화를 주신 분이셨죠. 제주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었거든요.” 그 후로 그는 5년여 동안 제주의 일간지를 구독하며 나름 제주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된다. 제주에 대해서 알아갈 수록 그동안 남 대표가 생각해 왔던 장애인복지의 새로운 생각을 실천할

곳으로 제주만한 곳이 없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홀로 마음 고생을 하던 차에 1996년 아내의 결단으로 당시 남제주군 성산읍 온평리에 토지를 구매하게 되고 그 이듬해 3월 31일 제주도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제주에 오자마자 그는 제주도청과 남제주군청으로 찾아가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만나 자신이 계획하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게 된다. 그의 계획은 제주의 데테코이랜드를 만들어 보는 일.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마치 엄청난 벽을 마주선 듯 한 부정적이고 싸늘한 행정의 반응에 남 대표는 놀라게 된다. 장애학생의 부모를 만나 자신의 계획과 고민을 얘기해 봐도 이상적인 계획일 뿐이라며 과연 실현이 가능하겠냐는 얘기만 듣게 된다.

결국 남들에게 구구절절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보다 작게나마 직접 보여주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 남 대표는 어렵사리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부지를 지금의 대정읍 구덕리로 옮기는 순간치 않은 과정을 거쳐 2000년 10월 '사회복지법인 평화의 마을'을 설립한다. '사회통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직업활동을 통한 재활'이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던 남 대표는 법인시설로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2001년도에 개소한다.

평화의 마을에서 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제품은 소시지를 비롯한 육가공품. 생산품목을 정한 이후 소량생산 체계를 갖추고 아내가 진주농업대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생산기술에 대한 자문을 얻게 된다. 아내가 교육을 받아오면 그 내용은 그대로 직원들에게, 직원들은 다시 장애인들의 능력에 맞도록 재교육을 시키는 과정이 반복 되었다. 시행착오를 거쳐 평화의 마을 소시지 제품은 당시 막 개장한 서귀포시내 홈플러스에 첫 납품을 하면서 세상에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1년여 간의 공을 들



여 2007년 제주지역 소시지·햄 생산업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HACCP 인증을 받게 된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로 롯데마트에 입점을 하게 되지만 고가의 재료비 등으로 늘 적자를 면치 못하다 결국 1년 2개월 만의 철수를 하게 된다. 이런 값진 경험들은 평화의 마을 가족들에게 큰 사업 밑천이 되었고 드디어 201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국제육가공박람회(IFFA)에 출품된 제품 8개 중 6개가 금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게 된다.



▲ 2013년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국제육가공박람회(IFFA)에서 '평화의마을' 소시지가 6개 부분 금상을 수상했다.

이 기록은 우리나라 최초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평화의 마을 생산품의 품질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남 대표는 지금도 가슴 뛰는 순간으로 기억하고 있다.

20여 년 전 무작정 제주에 내려온 이후 남 대표를 지켜주던 가장 큰 힘은 가족이었다. 특히 아내는 남편이 선택의 고비에 서 있을 때마다 힘을 실어주며 늘 옆에서 함께 해 준 은인이다. 제품생산 교육을 받기 위해 육지부에 다니는 일은 기본이고 그 스스로 전문가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에 단 한 차례 결석도 없이 2002년부터 대구대학교에 다닌 결과 제주지역에서는 최초 장애인직업재활분야 박사 학위를 취득한다. 그런 아내가 남 대표에게 늘 하는 말은 “전문가는 늘 현장에 있어야 한다.” 전문가로서 장애인이 권리있는 주체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부부의 신념이 이 한마디로 표현되는 것 같다.

20여 년 전 많은 이들이 한낱 '이상(理想)적인 계획'으로만 취급하던 남 대표의 장애인복지를 위한 큰 그림은 아직도 조심스럽게 그려지고 있는 과정이다. 역사는 늘 이상을 동경하는 자들에 의해 발전되어 왔듯 남 대표의 끝없는 도전이 새로운 장애인복지의 역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정리-김성건 제주사회복지협의회 사무국장〉

위 기사의 전문은 사회복지협의회 홈페이지(www.jejubokji.net) 내 제주지역복지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기부식품제공사업장 평가
'사랑나눔푸드마켓' 2회 연속 '우수' 기관 선정

후원자님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CMS후원자 명단(156명)

(주)금강축산유통, 강경록, 강경림, 강남길, 강맹자, 강문정, 강미경, 강순실, 강영복, 강원식, 강유심, 강인숙, 강재욱, 강재희, 강정운, 강창인, 강혜숙, 강효정, 고경수, 고경완, 고미현, 고병기, 고성운, 고승희, 고유신, 고익준, 고재완, 고정희, 고치환, 고현수, 고혜아, 고호준, 곽정태, 김경필, 김근홍, 김남근, 김대용, 김덕훈, 김동철, 김동환, 김두만, 김두훈, 김명수, 김명욱, 김미아, 김미자, 김보경, 김봉룡, 김선희, 김성건, 김성근, 김성부, 김소연, 김수정, 김연경, 김영미, 김영성, 김옥순, 김용범, 김은양, 김인숙, 김재홍, 김정덕, 김지훈, 김창협, 김춘옥, 김필연, 김현미, 김현아, 김혜순, 김효심, 김희숙, 나명숙, 농업회사법인서문식품(주), 대봉엘에프영어조합법인, 문경림, 문기훈, 문순천, 문재원, 박강란, 박경성, 박성홍, 박용좌, 박정우, 박정희, 박종일, 부미선, 사성빈, 송기천, 송연심, 송영신, 송임권, 송재근, 송창선, 송호철, 송화선, 신동호, 안희민, 양도행, 양명희, 양병규, 양윤정, 양은희, 양인리, 양제운, 양창언, 오경숙, 오성록, 오성립, 오승진, 오은숙, 이경림, 이경언, 이경희, 이동한, 이상주, 이선희, 이선희, 이성울, 이순실, 이아름, 이영진, 이예원, 이옥경, 이윤정, 이인복, 이정화, 이창도, 이태엽, 임경아, 임경희, 임부훈, 임양자, 임이랑, 장규환, 장승남, 장승련, 장승운, 장행우, 전금숙, 전학봉, 정미숙, 정지현, 정현숙, 조애록, 조정희, 조현경, 지경찬, 채선미, 한경미, 한미숙, 한예승, 한은성, 허성욱, 현성부, 현성요, 현영자, 현예수, 현재민, 홍경선, 홍명숙, 홍성희, 홍원철, 황용비 (2017년 3월 22일 기준)

기부식품후원 명단(217개소)

(사)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 (사)대한미용사회 제주지부, (영)제주자색고구마, (유)제주종합식품, (주)금강축산유통, (주)뉴월드 신제주점, (주)뉴월드 서사라점, (주)뉴월드 일도2호점, (주)다원축산, (주)대명통상, (주)메이드인제주, (주)삼다, (주)삼다올레, (주)시와월드, (주)오투기, (주)왕성전력, (주)이수종합건설, (주)일해, (주)제다푸드시스템, (주)제이앤이 대구지사, (주)제주유유, (주)제키스, (주)탐라, (주)하나주택, (주)후레쉬제주, JM상사, KT 제주고객본부, YWCA다인, 강진호, 고미연, 고영기, 고용범, 고태홍, 구암굴사제불자일동, 국제라이온스협회354-G지구제1지역, 금강수산유통, 금산서당골, 기분좋은축산마트, 길갈영농조합법인, 김만덕기념관, 김봉선, 김순희, 김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김진훈, 김치원, 꽃비나리는뜨락, 꿀떡볼, 나베식품, 남양유업 제주남부대리점, 내고향제주4050, 노원상,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회사법인 서문식품(주), 농업회사법인 (주)자담, 농업회사법인한백(주),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느영관광센터, 대산영농조합법인, 대성냉동, 대성수산, 대왕땅콩상회, 대왕상사, 대한노인회 제주연합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제주영락교회, 대한천리교 대산교회, 대혁물산, 대홍표고, 더나은영농법인, 던킨도너츠 제주외도점, 덴마크우유, 도담도담, 동광호도마을, 동부건재, 동원F&B제주, 모금회지정기탁, 모양, 몽생이그룸홀, 미녀들의수다, 미트트리(주), 빠라빠빠, 빵피아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산방FC축구회, 산방영농조합법인, 삼다유통(주), 생드르영농조합법인, 선림방, 선아농장, 섬오름동호회, 성광사, 성남식육점, 소담제주, 손뜻모아봉사회, 손창현, 신농영농조합법인, 신대구유통, 신성상사, 신송식품(주)천안공장, 신영식품하루미, 신천지지원봉사단, 신화유통주식회사, 싱싱부식, 아라어린이집, 아라파파, 아름다운라면봉사단, 아리랑떡집, 아미코스메틱, 아산재단, 암암영농조합법인, 어머니영농조합법인, 에스에이치유통, 여성단체협의회, 영농조합법인제주감귤과자, 영화식품(주), 오름물산, 옥수한상사, 온누리봉사회, 올레식품, 웰빙유통, 유원팜프카, 유진상사, 윤진호정형외과, 율곡어린이집, 이든이네, 인우영농조합법인, 일도2동 새마을부녀회, 일배움터, 일성식품, 일조식품, 자연드림 연동점, 자연드림 이도점, 작은세상봉사단, 잘잘특공대, 장혜경, 전국주부교실제주지부, 정희직물, 제성상회, 제일식품, 제주공방, 제주과량, 제주농연, 제주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물마루원장학교 영농조합법인, 제주민속식품, 제주발전연구원, 제주보리촌, 제주사랑나눔푸드마켓, 제주시청 주민복지과, 제주신용협동조합, 제주알로에영농조합법인, 제주오렌지, 제주웰빙양계영농조합법인, 제주의소리, 제주이어도지역자활센터, 제주자연영농조합법인, 제주진산식품,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노동조합, 제주특별자치도 국내여행안내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복지청소년과,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제주특산, 제주피클, 제주한미모로타리클럽, 제주함덕양봉작목반,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해양경찰서 제주파출소, 존샘봉사회, (주)1950, (주)메이드인제주, (주)바이오세상, (주)백록담, (주)수덕, 주식회사 백록육가공공장, (주)제다농수산, (주)제주로알식품, (주)제주마그마에너지, (주)제주사랑농수산, (주)제주한라포크, (주)청룡수산, (주)푸른제주, 중앙유통, 지나가다들른집, 진영상사, 참살이, 청정봉사단, 추자도영농조합, 컷어클럽, 커브스클럽노형점, 클럽카메론(변재웅), 탐라라이온스클럽, 태양수출영농조합법인, 투다리, 튼튼병원, 파리바게트동광초점, 푸른축산물판매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한국마사회 제주경마본부,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기림JK, 한라봉마을, 한라산동충하초 영농조합법인, 한라산식품, 한라산오가피, 한라육계영농법인, 한울림 색소폰 동호회, 햇살상사,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오라점, 행운식품, 향아수산, 현민철, 현승물산(주) (2017년 3월 22일 기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